

특집 2 : 2007년 바람과 희망의 메세지 3

포지셔닝을 통한 학교도서관의 인식전환



염광미

남수원중학교도서관 사서
forcor01@hanmail.net

일선 학교에서는 아직도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 근거는 역대 사서교사 임용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서교사 배치를 꺼리는 이유는 사서교사를 배치할 경우 다른 교과목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편견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도서관이 단지 분류·목록·대출·반납 등의 기술적인 업무를 보는 곳이나 공간적인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의 포지셔닝(positioning)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포지셔닝이란 마케팅(marketing)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로 기업의 브랜드가 소비자의 마음속에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포지셔닝을 잘하여 성공을 거둔 기업으로는 세계적인 세정제 브랜드

인 'Dove'가 있다. 'Dove'는 광고에서 '더러운 남성의 손을 씻기 위한 남성용 세정제'라고 포지셔닝 할 수도 있었으나 '건조한 여성을 위한 화장비누'로 포지셔닝해 성공을 거두었다고 한다. 또한 굴지의 자동차 브랜드인 'SAAB'는 노르웨이에서 뚜렷한 특징이 없는 자동차였으나 '겨울을 위한 자동차'로 포지셔닝을 해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

앞의 두 가지 경우 모두 원래 가지고 있는 기능이지만 자신들의 제품을 가장 잘 필요로 하는 소비자에게 맞추어 새로운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소비 욕구를 높여 성공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소비자의 요구를 직시하여 적극적으로 광고마케팅을 펼친 것이다.

학교도서관의 이미지가 이용자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는 미래의 학교도서관의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결정적인 변인이 될 수 있다. 학교도서관은 책을 빌려주는 곳이라는 기술과

공간차원의 기존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에서도 현대에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고차원적이고 직접적인 교육의 효과를 부각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독서를 통한 간접적 교육의 효과만을 어필해서는 그 결과가 미진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독서의 효과는 아주 느리게 그리고 오랜 시간 후에 나타나며 게다가 효율성의 정도가 가시적인 숫자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의 직접적인 교육의 효과를 부각시킬 경우 여론의 힘을 얻을 수 있으며 학교도서관을 새롭게 인식하고 그 필요성을 더욱더 느끼게 될 것이다.

학교도서관에서의 직접적인 교육이란 지적 교육과 인성교육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학교도서관 활용수업과 더불어 독서지도, 논술지도, 독서치료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도서관의 이미지가 이용자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는 미래의 학교도서관의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결정적인 변인이 될 수 있다. 학교도서관은 책을 빌려주는 곳이라는 기술과 공간차원의 기존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에서도 현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고차원적이고 직접적인 교육의 효과를 부각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은 이제 낯선 단어가 아니며, 독서지도 또한 많은 학교들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새 입시제도와 함께 아이들을 사교육시장으로 내몰고 있는 논술의 부분을 공교육에서 담당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성교육의 한 부분으로서 아이들의 성장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발달적 독서치료나 자료를 제시해주고 긍정적인 반응들을 주는 반응적 독서치료 또한 학교도서관에서 사서교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위의 기능들 모두 학교 현장에서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는 것들이지만 아직까지 교육청 관계자나 학교운영자들의 인식을 바꾸지는 못하였다. 학생들이나 학부모, 교사들 모두 학교도서관은 대출과 반납을 하여 주는 곳이라는 8·90년대 패러다임에 물들어 있다.

물론 대부분의 학교도서관이 지금까지는 정식 사서교사에 의해 운영되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크지만, 이제는 사서교사의 자리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현장과 각종 매체들을 통하여 새로운 포지셔닝을 시도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현직에 있는 사서교사들의 피땀어린 노력이 필요하다. 곳곳에서 사서교사 지역모임 등을 통하여 학교도서관을 발전시키기 위한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앞으로 더 확대되어 2007년에는 학교도서관에 새로운 바람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